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한-미 정책 브리프>

US-ROK POLICY BRIEF

2025-Mar. ISSUE 7

한국과 미국:

경제안보 추가 협력이 가능한가?

BY KRISTIN VEKASI

(크리스틴 베카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eb: <https://ipus.snu.ac.kr/eng/>
Facebook: facebook.com/IPUSINSNU
Instagram: [ipus.snu_official](https://instagram.com/ipus.snu_official)
Email: tongil@snu.ac.kr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eb: <https://gwiks.elliott.gwu.edu/>
Facebook: facebook.com/GWIKS2016/
Instagram: [gwukorea](https://instagram.com/gwukorea)
Email: gwiks@gwu.edu

저자 약력

크리스틴 베카시는 메인대학교 정치학과 및 정책 국제학부의 부교수이자 국제학 프로그램 디렉터이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는 국제정치경제, 정치적 갈등의 역학, 외국인 직접 투자, 민족주의, 공급망의 지정학 등이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주 전공으로 하며, 중국, 일본, 한국에서 수년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녀의 저서 *Risk Management Strategies of Japanese Companies in China* (Routledge, 2019)는 일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적 위험을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다룬다. 현재 그녀의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 복잡한 공급망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본, 중국, 미국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지 분석한다.



크리스틴 베카시

부교수
메인대학교

베카시 교수는 2014년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메인대학교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에는, 플로리다주 뉴칼리지에서 강의했고, 도쿄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도호쿠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녀는 맨스필드 재단의 "US-Japan Network for the Future" 회원이며, 2019년에는 아시아 연구국(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National Asia Research Program"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편집자: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번역자: 이찬송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25-Mar. ISSUE 7

한국과 미국: 경제안보 추가 협력이 가능한가?

크리스틴 베카시

메인대학교(University of Maine)

2025 년 3 월

한국은 지난 10 년 간 경제안보 정책을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의 교차점에서 적극 추진해왔다. 2023 년 말, 한국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경제안보를 [공식적으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필수 품목의 원활한 유입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상태"라고 정의내렸다. 같은 해 초, 한국,

**지난 10 년 동안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압박은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미국,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 국 정상 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주요 협력 분야로 [강조](#)했다. 공급망 회복력, 반도체 생산, 차세대 기술 등을 위한 기존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무역 정책의 무기화로 인해 경제안보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은 주변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경제 무기화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지난 10 년 동안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압박은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은 2016 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기업, 관광, 문화 상품 수출을 겨냥해 [경제 보복](#) 캠페인을 벌였다. 베이징은 비공식적인 무역 제재를 가했고, 중국 내 한국의 대형 소매업체 롯데의 사업을 중단시켰으며, 중국 관광객 수를 최소 40% [줄여](#) 수십억 원의 손실을 이들 산업에 끼쳤다. 2019 년 일본은 전지 강제 노동 배상 문제로 인해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자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세 가지 주요 자재의 [수출 제한](#)을 가했고, 무역 무기화를 시도했다. 이 자재들에 대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생산에 큰 위협을 가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벌였으며, 위기 초반 2 개월 동안 일본 관광객 수는 60% 이상 [감소](#)했다. 두 사례 모두 서울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냈고, 외부 압력에 대하여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긴박함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최근 수개월 간 글로벌 지정학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2025 년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불확실한 시기이며, 한국의 국내 정치 [혼란](#)은 효과적인 대응력을 저하시켰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 사이에서 오랫동안 끼어 있던 한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동맹 체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압력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NATO 협력에 대한 변덕, 심지어 가까운 이웃 캐나다를 상대로 벌이는 잦은 무역 정책 변화 등에서 보듯이, 미국의 약속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서울의

경제안보 정책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칩 4 동맹' 내 역할을 신중히 관리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한국과 미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였다. '칩 4 동맹'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파트너십으로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한국의 참여는 경제안보 강화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의

필수불가결성을 반영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한다. 대만 및 일본과의 연대는 대체 공급망 개발, 첨단 반도체 연구 협력,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노출 감소 등의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자체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25 년의 불확실성이 닥치기 전에도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완전히 동참하는 데에는 신중했는데, 워싱턴의 수출 통제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될 경우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는 중국 반도체 수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 수출입의 약 5 분의 1 을 차지하며, 한국 반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진다.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한국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한국의 산업 정책,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K-칩스법'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대립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나 "위험 분산(derisking)"보다는 회복력을 강조하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반도체 수출 제한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은 일부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이다. 두 기업 모두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규제를 따를

경우 생산과 시장 접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한국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이러한 딜레마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펼치는 중국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공급망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배재하고 대만 및 일본과의 심화된 협력을 취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삼국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첨단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따를 수 있다**

패키징 기술, 자재 조달, 생산 효율성 등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도 글로벌 반도체 위계 질서에서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도 도전이 따른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따를 수 있다. 보복은 관세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거나 분담금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고려했던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협력 계획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고, CHIPS 법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원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속될지, 또는 이러한 투자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기여할지 확실치 않다.

게다가 한국, 일본, 대만의 민간 기업들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TSMC 및 다른 투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 접근법은 높은 비용과 불확실한 보상으로 인해 국내적인 논란이 있었다. 세 국가의 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 없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공통의 상업적 이익을 민간 부문에서 확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지정학적 지형 속에서 경제안보 접근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한국에게 커졌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이런 변화가 요구된다.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향후 경제안보 협력은 더욱 거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이 더 적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측면 모두에서, 미국과의 잠재적 공동 경제안보 조치가 갖는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민간 부문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인데, 특히 반도체 제약과 같은 미국 주도 안보 이니셔티브에 순응하는 것은 기업 수익성과 장기적인 중국 시장 접근에 위협을 준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인식하고, 자국의 국가 안보 정책이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에 미칠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워싱턴이 의미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나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한 압박만 가한다면, 동맹국들은 대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어 미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만약 워싱턴이 의미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나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한 압박만 가한다면, 동맹국들은 대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어 미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미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그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 2019년 일본의 무역 제한에 대응하여 반도체 핵심 자재의 국내 대체품을 개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하여 공급망 회복력과 산업 자립을 강화하는 경제안보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종종 그 효과를 본다. 오늘날 워싱턴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동맹국들에게 취한다면 이 과정이 가속화되어 결국 미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압박이나 가혹한 경제 정책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한 번 발사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경제 및 안보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어려운 선택에 몰아넣기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보다 신중하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맹국들이 더욱 독립적으로 변하도록 밀어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국, 서울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과 같은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다각화된 경제 및 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방어적인 경제안보 측면에서 좀 더 큰 유연성을 갖고 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광물, 방어준비 태세 물품, 제약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큰 회복력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이다. 결국, 서울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과 같은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다각화된 경제 및 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강력한 지역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강대국 간 경쟁에서 유발되는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한-미 정책 브리프(The ROK-US Policy Brief)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가 지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현재 한국 관련 정책 사안을 분석하는 공동 간행물입니다.

면책조항:

한-미 정책 브리프(The ROK-US Policy Brief)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편집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또는 기타 기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